

第53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行政委員會會議錄

第3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6月13日(木) 午前10時

場 所 第1小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96年第1次區有財產管理計劃變更案審查의件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96年第1次區有財產管理計劃變更案審查의件(城北區廳長 提出)..... 1面

(10時33分 開議)

1. 서울特別市城北'96年第1次區有財產管理計劃
-
- 變更案審查의件(城北區廳長 提出)

○委員長 徐化錫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북구의 회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96년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2차 행정위원회가 개의되어 가지고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도중에 현장 답사를 위해서 산회를 한 바 있습니다. 산회 후 현장을 직접 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느낀점 많으리라고 봅니다. 과연 도서관 부지로 합당한 장소냐, 성북구 구립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장소냐 하는 것을 각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이 서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다시금 갔다 오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를 하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질의를 종결했으니까 토론만 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원래는 토론입니다마는,

○金壽榮委員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어제 제가 긴급동의할 적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기로 재청했습니다.

(「안 돼요」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요. 네, 김진권위원님.

○金振權委員 어저께 사실은 질의를 끝을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현장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 래 현장 답사를 갔다 온 후에 거기에 대한 궁금점, 궁금한 점이 각 위원님들이 보신 시각이 있습니다. 시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해야 그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물론 어제는 질의 답변이 끝났었는데 현장 답사를 토론 중에 갔어요. 토론 중에 갔는데 일단 어제 현장을 답사 했으니까 오늘 방금 우리 김진권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느낀점이라든가 그 시각이 있으니까 간단히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것도 더 좋지 않겠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신위원님.

○申宗鉉委員 신중현위원입니다. 우리가 회의 원칙론만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가 2시간 동안 을 질의응답을 해서 종료를 마쳤습니다. 마친관계를 가지고 현지답사를 했다고 해서 다시 여기에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시고 현장답사하신 내용을 토론으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徐化錫 저는 좀더 회의를 부드럽게 진행하고 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위원님들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제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徐化錫 아니 지금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거의다 우리 위원님께서 어제, 회의규칙을 말씀하시고 또 어제 토론중에 갔기 때문에 일단 질의와 답변은 끝난 것으로 보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尹晚九委員 방금 송하성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토론도 좋지만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네, 송하성위원님.

○宋夏星委員 송하성입니다. 가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의 메모로만 해서 어제 토론은 끝났다 뭐가 끝났다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지 가 본 소감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의원칙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얼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제 종결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끝내 버리자 하는 이야기는 회의원칙만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얘기가 안 됩니다. 이거 할 필요성도 없잖아요. 회의원칙을 가지고 그러면.

○委員長 徐化錫 송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어제 구립도서관으로서 장소가 합당한 장소냐? 과연 앞으로 우리 구립도서관이 있을 때 우리 구민이 많은 이용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여러가지를 보기 위해서 갔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보시고 느낀점을 이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서 토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합당한 장소가 아니면 반대 토론을 해 주시고 합당한 장소다 앞으로 그 장소가 필요하다 우리 성북구 여건으로 봐서. 그렇다면 찬성

을 해주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윤만환위원님.

○尹晚九委員 신중현 부의장님께서 원칙론을 구사해서 회의를 진행하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송하성위원님은 어제 갔다 온 소감을 다시 한 번 듣는 게 물론 질의순서는 끝나고 토론으로 들어갔지만 듣는 순서가 좋지 않겠느냐 갔다 온 소감 그것을 주장하셨는데 질충안을 내놓습니다. 잠시 10분간을 정회한 다음에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그냥 대화를 해서 어떤 충분한 조치를 해놓고 다음에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유진무위원님.

○俞鎮武委員 저희가 오늘 회의시간은 이제 연습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의 틀을 벗어나서는 이 회의가 진행이 된다 해도 합당하질 않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의 시간에 자기 의사를 발표를 해가지고 토론을 종결하는 게 신중현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徐化錫 더이상 말씀을 자제해 주시고,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네, 신중현위원님.

○申宗鉉委員 찬성토론입니다. 저는 어제 현장을 답사는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어제 귀중한 시간을 내 가지고 현지를 답사해서 가지고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가 진행되기 전까지 많은 관계를 서로 질의 응답을 통해서 이어졌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년대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봤을 때는 우리 성북의 도서관으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러나 당면한 과제로서는 현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적합한 그런 관계로 판정이 된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재영위원님이나 또

우리 박시준위원님은 거기 현재 사시면서 거기에 대한 부지를 몇년을 두고서도 같이 논의가 됐었고 이번 도서관으로 선정되기 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성북의 장래성을 본다하더라도 4개 지역을 전제로 해서 도서관을 계획이 추진중이라고 공보실장께서도 어제께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제로 하고 또 우리가 시비로서 지금 보조를 받고 또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모든 문제를 연구를 해가지고 또 다음에 몇년 후고 십년 후고 5년 후고 여기에 연구해서 우리 성북의 진정한 도서관으로서 53만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건립할 수 있는 체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우리가 당면과제로 이어지는 부분이니만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이 답사하신 관계로 봤을 때는 찬성으로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붙여서 찬성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化錫 또 다른 위원님. 네, 송하성위원님.

○宋夏星委員 우리 신종현위원님께서 현장도가 보시지를 않고 찬성토론을 먼저 하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네요. 또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어느정도를 보조를 받고 있으며 그 계획이 얼마나 드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알고 있죠」하는 이 있음)

누가 알고 있어요.

(「어제 질의 응답에서 다 끝났어요」하는 이 있음)

질의 응답에서 얼마나 받기로 했습니까?

○委員長 徐化錫 시비가 28억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宋夏星委員 28억을 받기로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이것을 받아 냈는지 안 받아 냈는지도 모르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지를 사 놓은 것으로 알았었는데 사놓지도 않았으며 지금 우리 신종현위원님께서 그 현장을 가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실질

적으로 구도서관으로서는 합당치 않다. 단 그쪽에 을구지역으로 해서 도서관을 하나 만드는 것은 타당할런지 모르지만 우리 성북구 일원의 도서관으로 해서는 너무 외진 곳이 아니겠는가 하고 나는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대토론을 합니다. 시구 도서관으로서는 반대하고 일부 말하자면 을구 도서관으로서는 그것이 합당할런지 모르지만 전체 성북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구도서관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다. 너무 외소하고 그 지역으로 해서도 사실은 산 밑도 아니고 산 밑에도 깊이 있고 거기를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서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안 돼 있던 곳이었다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송하성위원님 반대토론이시죠.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김진권위원님.

○金振權委員 사실은 어제 현지 답사를 우리 여러 위원님과 같이 현지 답사해 봤는데 현재 위치 전체 평수는 충분히 나올런지 모르지만 가로 세로의 길이 가지고는 사실은 폭의 넓이가 18m에서부터 한 20m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목측으로서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하치가 18m 그리고 최상치가 22m쯤 된다고 봤을 때 폭 18m에다가 기준해서 설계를 한다고 보면 용적률 전체는 맞을런지 모르고 공기비율은 맞을런지 모르지만 일조건 그리고 간선도로 6m에서 또 주택가에서 후퇴선을 따지고 본다면 제대로 설계가 나오느냐 저는 여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사실은 질의 다시 하자고 한 것인데 그 용적률이나 공기비율은 맞고 일조건이나 후퇴선주위 주택의 민원관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길이 있다면 석관동 장위동 월곡동 방면에 도서관은 건립할 수 있을 망정 우리 성북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구립도서관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셔야 되고, 과연 20m폭을 가지고 후퇴선 일조건 맞춰서 설계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도 아닌 토론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가 발언하게 됐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또 다른 위원님 윤홍로위원님.

○尹弘老委員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윤만환위원님께서 정회를 해가지고 본 안건의 합의점을 도출하자는 안에 재청을 합니다. 지금 본안건이 이미 가결되어서 재심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고 지금 심의중입니다. 다만, 질의종결이 됐다고 그래서 본안건을 토론으로 끝내고 가결을 부치기 보다는 본 안건을 가지고 현장답사까지 해서 위원님들이 과연 이것이 적정하나 하는데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의 의문점은 바로 우리 구민들의 의문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부간 결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시간을 정회를 해서 또 구당국과의 도서관설립 계획에 대해서 미처 질의응답을 통해서 알지못했던 사항은 다시 확인하고 본안건을 처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徐化錫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停會)

(11時40分 續開)

○委員長 徐化錫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송하성위원님.

○宋夏星委員 지금까지 토론을 했습니다만, 전부다 28억이 육심이 나서 찬성쪽으로 했는데 저 혼자만 반대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구립도서관으로서는 너무 의지고 우리 행정위원들 전체가 찬성했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되네요, 그래서 구립도서관으로 하는 것 보다는 상월곡동 도서관으로 하든지 동부도서관으로 하든지 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실지 성북구의 도서관으로해서는 합당치 않으나 구에 어차피 많은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거기다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네요. 앞으로 한다고 한다면 명명은 성북구 도서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부도서관으로 하든지 상월곡동 도서관으로든지 해서 어쨌든 면모가 명실공히 성북구 도서관으로 해서는 왜소하고 적지 않는가

또 너무 귀퉁이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또 다른 위원님, 유진무위원님.

○俞鎮武委員 저도 찬성을 하면서 성북구의 도서관은 하나는 절대 부족이니까 최소 네 다섯개 도서관을 건립하기를 기원을 하는 뜻으로 찬성을 합니다.

○委員長 徐化錫 그러면 더이상 토론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되 구립도서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구립도서관 명명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95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3分 散會)

○出席委員 12人

徐 化 錫	崔 東 煥	高 允 根
金 壽 榮	金 振 權	朴 時 俊
宋 夏 星	申 宗 鉉	安 傑 塔
俞 鎮 武	尹 晚 丸	尹 弘 老

○缺席委員 1人

崔 桂 洛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宋 鍊

○參席公務員

財 務 局 長	蔡 昇 基
財 產 管 理 係 長	李 基 宅
文 化 公 報 室 長	安 明 佑